

# 동양 최대규모의 대웅전, 세계를 향한 포교의 전당으로 도약하는 제주 약천사를 찾아서 ...

"동양 최대규모의 대웅전, 세계를 향한 포교의 전당으로 도약하는 약천사"를 찾아서 사귀포시 대표동 소재 도약암(道躍峯)의 완류를 아홉에 안고 드넓은 잔디밭 너머 경부른 빛의 태양광 자락을 거머쥔 대웅전이 하늘을 떠받치듯 우뚝 솟아 있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 조용하면서도 단정하게 정돈된 나한전이 있고 수백 미터의 지하에서 솟아 나오는 도약샘의 용출수는 유유히 흐르다 단이 저 있는 곳에 이르르면 무심히 삼단폭포로 변하여 시원한 물기둥이 된다. 한곳으로 모여들어 수로 따라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오고 감이 마치 인간의 삶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불사 기간동안 풍문에 떠도는 소문도 믿었는데 그 진위도 파악할겸 해서 약천사를 찾았다. 필자가 약천사를 방문한 날이 때마침 산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탐라 다우회의 지도사업과도 수교식 이 있는 날이었다. 온전한 다우회 위해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자신을 반포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늘 바시는 차와 향암에도 아닐 때라 그 맛이 사뭇 달랐다. 왜 그랬을까? 성공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하여 그렇지 않았나 싶다.

다음은 소문의 진위에 대해 구지스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사실에 대해 가깝없이 정리해 보았다.

- 이처럼 시설규모가 큰 사찰에서 구지 소임을 맡아 보시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대웅전 규모가 동양최대라 할 수 있고 본존불인 비로자나 목불상 역시 문화재급으로 손꼽히 있을 정도로 어떠한 동기도 이러한 대작 불사를 하게 되었는지요.

**성공스님:** 약천사를 창건하신 해인스님께서는 저에게는 은사스님이시기도 하지만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목연가 당사의 역할을 해야 되었다는 큰 뜻을 품고 계신분이시요. 스님께서는 이미 재주도가 앞으로 극락자유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포교할 수 있는 사찰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천사 창건을 위한 원력을 세우시고 1987년 초에 대한의 대웅전 기공식을 가졌지요. 그후 10여년에 걸친 불사 끝에 지난 96년 음력9월에 불사에 동참하신 전국의 불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대작불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른 경제적 부담도 크셨을텐데요.

**성공스님:** 물론입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경제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큰스님께서 당신이 배우신 원력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무슨일을 하든지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요 이는 오로지 신심이라는 전국의 불자들이 본과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 원력이요 생각합니다.

- 10여년이 넘는 불사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난감할 을 보게된 소장은 어떠하십니까?

**성공스님:** 한마디로 불자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3만여명이 넘는 도량내에 지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보다 이 시절은 향후 1세가 이상 그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희망을 심어주어 공덕적으로

모든 불자들이 깨달음의 길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부처님의 성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약천사 부도설, 타 종단으로 넘어갔다는 설, 부처에 놀려 해인스님께서 해외에 도피 중이라는 설 등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함인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성공스님:** 허허... 그런걸 보고 야하면 글썽에도 연기가 난다는 것 입니다. 스님들이야 그런 소문 들었기로서니 뭐 대수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음이나 당좌를 사용하지 않으니 부도설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는 조계종승 라이신데 조계종승려가 조계종을 떠나서 어디 가서 설교하며 죽내의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불사인데 누가 어느 종단으로 넘어간 말입니까?

또 부처에 놀리다니 무엇이 놀리라는 말입니까? 해인스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국제 포교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도피는 무슨 도피입니까? 그 구덩이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사 기간동안 수행자들이 세속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뜻대로 안되자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의도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천사는 아무 일 없이 건재해 있는데 헛소문 생겨나 공언하신 불자들에게 의구심만 심어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은사스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열심히 포교활동 하며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허허...

-그런군요. 종단등록이 상당히 늦게 되었는데 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성공스님:** 예, 그 문제가 종단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권고를 받아 왔는데 약천사의 입장을 모르고 공언한 오해들이 있었나 봅니다. 약천사의 법단 낙성식은 96년에 했으나 행정법규인 건축물 사용허가는 98년 초에야 나왔지요. 그때 바로 서류를 갖추어 종단 등록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지난해 5월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종단사태가 발생하여 종단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일년여가 지난 후 사태가 안정이 되고 해서 서류를 등록을 마치고 있었지요. 불자들이 위해 이루어진 도량인데 종단에 등록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일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모두 종단으로 통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님께서 조계종단 명의



포교의 전당으로 도약하는 제주 약천사

르 통기가 되어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시며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필자를 바라 보셨다.)

-공연한 오해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유언비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성공스님:** 마음이 불편할 것까지는 없고 중생심으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이 안타깝지만요. 마치 후세 사람들에게 다 남기고 갈 것들인데 무슨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었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런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인스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불사를 마무리 하셨으면 사찰운영을 하면서 권히 지내셔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유 의 실천입니까?

**성공스님:** 소유다 무소유다 구분 지을 필요가 없지요. 한평생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인데 무엇이 소유이고 무엇이 무소유였습니까? 현재 사람의 동으로 살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모든 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좀 하나 가지면 그게 소유의 전부라 할 수 있지요. 돈 명예 등 현상적인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금강경에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무소유 의 실천이지요.

-해인 스님께서 외국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불자들이 사찰운영과 관련된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성공스님:** 각자의 판단은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이나 어찌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께서 국제포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인연이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신상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하는일이 아닌 이상 이러 저러한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

지요. 그런걸 의식 하다보면 정작 할 일을 다 못할텐데 그렇게 남비해도 좋을만큼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지난 해 11월 약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취임한 이래 어린이 법회 운영 및 유치원 설립 등 어린이 포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소신이라도 갖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공스님:** 어린이를 대상으로 포교를 한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 법회는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 유년시절의 잠재된 경향이 한국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설립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종교단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불교의 발전을 바라한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어쩌면 이 일이 기성 불자들의 단연한 백일일 것입니다.

-예,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포교는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향후 약천사의 불사 계획을 포함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성공스님:** 불사가 생활속에서 항상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는 음력 9월 15일에 나한전 봉행식을 마치고난 후에도 오백나한을 모시는 불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8만불을 모시는 불사도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사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것이고 앞으로 약천사를 훌륭한 기도 도량이 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나아가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은 오는 음력 9월 15일 법당 낙성 3주년 기념 및 나한전 봉행식 법회가 종단 등록 후 처음 갖는 법회라 여의 법회보다도 그 의미가 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하직인사에 말하셨다.

필자는 약천사의 위세를 마치고 떠나면서 깊은 숨을 돌리마셨다. 신선한 청량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한라산의 정기가 약천사에 이르러 도약암(道躍峯)에서 분출되고 해인 스님의 원력과 성공

## 100만배 기도일화 유명



약천사의 오늘을 있게한 회주 해인스님은 56년 경복 등 화사에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해인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구 동화사 금당 선원에서 수선간거 이래 10만거를 성만하고 70년대 제주 약천사 선원에서 선원장으로 제방 납자들을 가르치는 등 수행에 몰두해 왔다. 스님은 71년 해인사에서 무릎이 터지고 쓰러지면서 100만배 기도를 이뤘내 신도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킨 일화로 유명하다.

## 회주 해인스님

회주 해인스님 선원에서 수선간거 이래 10만거를 성만하고 70년대 제주 약천사 선원에서 선원장으로 제방 납자들을 가르치는 등 수행에 몰두해 왔다. 스님은 71년 해인사에서 무릎이 터지고 쓰러지면서 100만배 기도를 이뤘내 신도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킨 일화로 유명하다.

## "큰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전국의 불자들의 청성과 기도원력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의 은사스님이신 약천사를 창건하신 해인 큰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제주도가 극락 자유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까지도 포교를 한다는 일념으로 약천사 창건 원력을 세웠습니다. 동양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법당에서 보듯이 엄청난 대작불사를 성취하기까지는 우선 해인 큰스님의 원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며 큰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전국의 불자들과 해외동포 불자들의 청성과 기도원력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한 약천사는 이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부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 주지 성공스님

스님의 의욕 넘치는 열정이 극락도량의 청정한 기원과 함께 잘 이루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道樂"이 있어 사오가 樂樂寺 인가보다. 앞으로 약천사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더욱더 정진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어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만약 약천사를 방문해보지 못한 불자들이 있다면 단 하루방만이라도 묵으면서 정진기도를 해 보시라 도약암(道躍峯)의 정기로 깨달음을 얻으리라. 마하 반야바라밀

대담 : 김보균  
Email: hoyhoon@komet.net

#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중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이신 해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하진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동양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병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 일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혜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해인 큰스님  
11시 영가천도재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관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하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대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라대신 무"

##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동접수 - 일만원

##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 공연  
·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 선물추첨(CD, TAPE) 100명  
· 기념촬영(추첨)  
·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부산 우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동면 문지) 080-966-9999, 011-699-3348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혜 印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주지 성 性空 합장 · 팩스 738-5022